



전주시 완산구 '완산회', 3월 정기회의 개최

완산구 관내 주요 유관기관 및 단체·기업체 대표로 구성된 완산회(회장 김진태)가 지난 10일 완산구 관내 음식점에서 3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완산회(회장 김진태) 임원진 및 회원, 국승철 완산구청장이 참석하여 시정 및 구정 홍보사항을 공유하고 완산구 지역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봄철을 맞아 △지역 상권과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 및 중장년층 일자리 확대,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도시 환경 정비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으며 완산구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김진태 완산회장은 "바쁜 일중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완산구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이 자리가 뜻깊게 느껴지며 완산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승철 완산구청장은 "완산회가 완산구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완산화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더욱 살기 좋은 완산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남원 동충동·순창 풍산면 '자매결연'

남원시 동충동(동장 박미라)은 지난 10일 자매결연 도시인 순창군 풍산면을 초청해 두 지역이 서로 정을 나누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충동과 풍산면은 2024년 5월 2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상호 방문과 교류를 이어오며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만남은 동충동의 초청으로 마련해 제6회 남원 춘향제와 순창 장류축제 등 두 지역 축제 교류와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춘향제 기간 중 5월 3일 예정된 동충동 대동강이 참여를 안내하고, 광한루원과 피오리움 등 남원의 주요 관광 명소를 둘러보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김선희 풍산면장은 "앞으로도 두 지역이 서로 교류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박미라 동충동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의 우호 관계 강화를 위해 동충동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두 지역이 서로 정을 나누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한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해경, 농무기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 발령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성태)는 봄철 농무기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5개월간) 부안·고창군 일원에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봄철 농무기 기간 중 부안, 고창군 일원에서 연안사고 28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부안해경은 봄철 농무기 기간에 서해안 지역에 짙은 안개로 인해 채석장, 하섬 등 갯바위 및 갯벌에서 고립·추락과 같은 연안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일선 현장에서 부안 사고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백하은 안전과장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부터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연안을 찾는 국민들 또한 개인의 안전을 위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파격 보상으로 성과문화 확산”

새만금청, 현대차그룹 9조 투자유치 특별성과 포상

새만금개발청이 현대차그룹의 9조원 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이끈 공무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하며 공식사회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하고 나섰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개발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현대차그룹 9조원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무원 9명을 선정해 11일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새만금 사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공식사회 경쟁력과 성과 창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포상 대상은 전북 지역 단일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현대차그룹 9조원 투자유치를 이끈 국제도시과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기업 중심 스마트도시 계획 모델을 수립하고 현대차그룹과 100여 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과 대규모 부지, 교통 인프라 등 새만금의 감점을 부각해 투자 협약을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투자유치는 대규모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약 16조원의 경제효과와 7만1,000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포상금은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투자유치 전 과정을 총괄하고 협상을 주도한 전용희 국제도시과장은 1,000만원의 포상금과 표창을 받았으며, 전력 및 RE100 관련 협의를 지원한 남궁재용 국장은 300만원, 협약 실무를 담당하던 이나연 사무관은 300만원의 포상금과 표창을 각각 받았다. 이밖에 투자유치 실무 맡은 공무원 6명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돼 총 2,000만원이 수여됐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특별성과 포상은 현장에서 만들어낸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탁월한 성과에는 합당한 보상이 뒤따르는 문화를 정착시켜 새만금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사랑 꽃핀 우리집’... 남원 자봉, 행복매달 프로젝트 성료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월 30일부터 약 40일간 진행한 사전 현장점검 행복매달 프로젝트 ‘사랑이 꽃피는 우리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제도적 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해, 노후한 주거 환경 개선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결합한 통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남원사랑클럽, (사)남원시애호반부,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남원엄마들의사랑방 등 관내 9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가 하나의 팀으로 뭉쳐 각자의 전문 역량을 발휘했다. 참여 단체들은 사업 기간 수혜 가구를 직접 방문해 △도배·장판 시공 △맞춤형 가구 제작 및 설치 △가스레인지·환풍기 교체 △방충장막 설치 등을 진행하며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탈바꿈시켰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시설 개보수에 그치지 않고, 각 단체의 물품 후원과 재능 나눔이 더해져 사업의 의미를 더했다.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농어업협회 등과 연계해 정신건강 상담과 의사소통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수혜 가구의 심리적 안정까지 세심하게 살폈다. 사업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새롭게 단장한 보급차에서 ‘오픈식’을 개최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상 가족에게 잊지 못할 따뜻한 추억을 선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피해자 일상 회복 다짐... 정읍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기총회

정읍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양곤)는 지난 10일 정읍 순정체육관 한우명품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읍시 전주시장경찰청장 정읍지청장장 김양곤 이사장을 비롯해 담당 검사와 센터 임원 등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총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2025년도 사업 보고, 수치 결산 승인과 함께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수치 예산 승인 등의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에 앞장선 우수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과 회원 간 화합을 다지는 만찬이 진행됐다. 검찰총장상은 부안지회 최성문 이사가 차지했으며 권인태 고창행정실장이 검사장 표창을 받았다. 또한 정읍지회 김효선, 부안지회 이미화 회원과 고창지회

연계해 정신건강 상담과 의사소통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수혜 가구의 심리적 안정까지 세심하게 살폈다. 사업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새롭게 단장한 보급차에서 ‘오픈식’을 개최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상 가족에게 잊지 못할 따뜻한 추억을 선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유재관 이사가 각각 지청장 표창을 수상했고 정읍지회 유예순 고창지회 최은미, 부안지회 황희철 회원이 김양곤 이사장으로부터 우수 회원 공로패를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민원실 전 직원 대상 친절·소통 교육

남원시는 11일 시청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소통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자인 박준기 미래산업정책국장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감의 중요성 △감정을 최소화하는 소통법 △상황별 민원 응대 전략 등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장애 민원인과의 소통의 벽을 허물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수어 인사말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한 직원은 "실제 민원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실용적인 대처법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민주 민원과장은 "지속적인 교육과 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원실을 만들고, 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향교동, 남원읍과 '정답은 반찬배달' 협약 체결

남원시 향교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현목)는 지난 10일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 강화와 식생활 지원을 위한 '정(情)답은 반찬배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이플러스비지생활협동조합(이하 남원읍, 대표 나영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향교동은 매일 남원읍과 목가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 10가구를 매일매일 말반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은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교동은 올해도 꾸준한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대상 가구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영자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NH농협은행 임실지부, 농촌유학생 가족 지원 기탁

NH농협은행 임실군지부(지부장 이재문)가 11일 임실군을 방문해 농촌유학생 가족을 지원해달라며 임실군에향장학회에 1천만원을 지정 기탁하며 지역 인재 양성과 농촌유학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번 기탁금은 임실군으로 전입해 생활하고 있는 농촌유학생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임실군지부는 지난해에도 약 500만원 상당의 지역농산물인 쌀과 농산물상품권을 농촌유학생 가족에게 지원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한 바 있다. 올해는 물품 지원 대신 1천만원의 지정기부 형태로 기탁했으며, 임실군은 농촌유학생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임실군 농촌유학은 도시 학생들이 농촌에서 생활하며 자연과 공동체 속에서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 인구 유입과 농촌 활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임실=진홍영기자



전북은행 임직원들, 진안군에 고향사랑기부

JB금융그룹 전북은행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진안군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역 상생에 힘을 보탰다. 진안군은 11일 전북은행 직원 161명이 참여해 모은 고향사랑기부금 1,650만원이 기탁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전북은행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것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전북은행은 2023년 1,200만원, 2024년 1,520만원, 2025년 1,370만원에 이어 올해도 기부에 동참하며 4년 연속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각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부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진안군은 이번 기부금을 지역 주민 복지 증진과 청소년 교육 지원, 문화·예술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태호 전북은행 진안지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실감동화나라 프로그램 재개

김제시립도서관은 오는 17일부터 '실감동화나라'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실감동화나라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비박을 포함한 5개 면을 직접 터치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직접 체험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총 189회 운영됐으며 관내 기관과 개인이 참여했다. 현재 프로그램은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 등 5편형 콘텐츠와 '사랑을 찾는 두더지' 등 단편형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5편형 콘텐츠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신청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통합예약 메뉴의 '실감동화나라'에서 가능하며, 기관은 화·수·목요일 중 날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은 5시부터 10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21일부터 토요일마다 진행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2026년 금구도서관 아카데미 운영

김제시 금구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자기 계발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10주간 2026 금구도서관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디지털 교육부터 감성적인 예술, 인문학 특강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돼 주민들의 폭넓은 학습 욕구를 충족할 예정이다. 주요 강좌로는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속 시화'와 '귀로 보는 건강관리', △우리동네의 풍경을 직접 펜과 물감으로 담아내는 '어반스케치', △미술사 흐름으로 배우는 '영화이야기' 등으로 구성됐다. /김제=곽노태 기자